

신라의 관음사상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Kwan - yin Thoughts of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김영태 Young Tae Kim
출처 (Source)	불교학보 13 , 1976.12, 63-86(24 pages) BUL GYO HAK BO 13 , 1976.12, 63-86(2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89
APA Style	김영태 (1976). 신라의 관음사상. 불교학보, 13, 63-8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04 10: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의 觀音思想

—三國遺事를 中心으로—

金 煥 泰

1. 觀音 靈驗史實(遺事所傳)
2. 經典所說의 觀音菩薩
3. 觀音信仰의 新羅의 展開
- (1) 新羅觀音의 確立
- (2) 十一面 및 千手觀音의 信仰
- (3) 救世利生の 無限한 應現
4. 新羅 觀音思想의 特性

緒 言

三國遺事에는 觀音信仰 關係의 기록 또한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遺事に 보이고 있는 이러한 觀音信仰의 諸資料(說話·傳說)들을 모두 整理하여 考察하므로써 新羅의 觀音信仰 및 그 思想을 알 수가 있으리라고 본다.

佛敎信仰의 전반에 걸쳐서 觀音信仰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觀音信仰은 佛敎에 있어서 現實苦 解脫 및 希願祈求의 信仰의 가장 대표적인 理想的 信仰形態라고 할 수가 있으며, 오늘날에도 모든 佛敎人의 많은 信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佛敎가 이 땅에 傳來되면서 觀音信仰도 들어왔겠지만 高句麗나 百濟에서의 觀音信仰을 알만한 자료는 전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에 있어서, 新羅代의 觀音信仰 史實들을 전하고 있는 이 三國遺事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最初의 觀音靈驗傳 또는 觀音信仰 說話集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 韓國佛敎人의 손으로 編刊된 觀音關係 靈驗傳이 몇 가지가 있으나 모두가 中國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新羅의 靈驗說話는 전연 없고, 다만 高麗 了圓의 法華靈驗傳에 단 두 편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해 이 遺事에는 12種餘의 新羅 때 觀音信仰 史實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모로 意義가 적지않는 三國遺事 所傳의 信仰說話들을 한데 모아 新羅

의 觀音思想을 살펴 보기 위하여, 먼저 觀音靈驗史實을 抽出하여 整理해 보고, 다음에 關係重要經典 所說의 觀音菩薩을 概觀하고, 그 다음에 新羅 觀音信仰의 展開와 그 思想的 特性 등을 考察하려고 하는 것이다.

1. 觀音 靈驗史實

三國遺事に 보이고 있는 關係資料를 통하여 新羅時代의 觀音信仰과 그 思想的 특수성을 考察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에 먼저 그 관계의 기록들을 整理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遺事所傳의 信仰史實들을 모두 抽出하여 大략 時代順으로 정리해서 옮겨 보려고 하는 것이다.

(1) 千部觀音 造成과 慈藏 出生

善德王代(632~647)의 高僧이었던 慈藏은 眞骨出身이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茂林蘇判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三寶에 歸心하였다. 그리하여 觀音菩薩像千部를 造成하고는 아들 하나 얻기를 希求하여, “만약 아들을 낳게 된다면 法海의 津梁이 되게 하겠습니다.”하고 祝願하였다. 그 뒤 釋尊의 誕日에 아들을 낳았으므로 善宗郎이라 이름하였는데, 나중에 出家하여 新羅의 佛敎界를 一新케 하였던 慈藏法師가 바로 그였다는 것이다.¹⁾

(2) 洛山寺 緣起와 海邊聖峯

義湘法師(625~702)가 처음 唐에서 돌아와 大悲(觀音)眞身이 이 海邊의 窟內에 住한다는 것을 듣고 西域의 寶陀洛伽山이 白衣大士(觀音)의 眞身住處이므로 그 이름을 본따서 洛山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義湘은 처음에 眞身을 親見코자 7日을 齋戒하고 座具를 晨水 위에 띄우니 天龍八部가 侍從하여 峯內로 이끌어 들였으므로, 空中을 향해 參禮하며 水精念珠 一貫을 내려주므로 義湘은 그것을 받고 나오다가 또 東海 龍으로부터 如意珠 一顆를 받았다. 그는 다시 7日을 齋戒하여 觀音眞容을 보게 되었는데 그 때 觀音은, “座上의 山頂에 雙竹이 湧生할 것이니, 그 곳에 殿堂을 지으라.”고 하였다.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났으므로 그 곳에 金堂을 짓고 觀音塑像을 奉安하니 대나무가 도로 없어졌다. 義湘은 비로소 이 곳이 틀림없는 眞身의 住處임을 알았으며, 절 이름을 洛山寺라 하고 聖峯에서 받은 水精念珠와 如意珠를 聖殿에 鎮安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 뒤, 元曉法師가 觀音眞容을 瞻禮하러 이 곳으로 왔었다. 처음 南郊에 이르렀을 때, 논 가운데서 한 사람의 白衣女人이 벼를 베고 있었으므로, 元曉는 장난삼아서 벼이삭을 청하였더니, 그 女人은 짐짓 쪽정을 벼이삭(稻荒)을 주는 것이었다. 元曉는 다시 가다가 다리(橋) 밑에서 月水帛을 씻고 있는 한 女人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女人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주었으므로, 元曉는 그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다시 떠서 마셨다. 그

1) 遺事 卷4 義解 5, 慈藏定律.

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 위에서 靑鳥 한 마리가 ‘休醜□和尚’²⁾이라 부르고는 홀연 사라졌으며, 그 소나무 아래에는 한 짝의 신(鞋)이 벗어져 있었다. 元曉가 洛山寺에 이르러 觀音像의 座下에서 또 한 짝의 신을 보고는 비로소 앞에서 만났던 聖女가 觀音眞身이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觀音松이라고 하였으며, 元曉는 聖岬로 들어가 다시 眞容을 보려하였으나 風浪이 크게 일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³⁾

(3) 十九應身の 하나(廣德 妻)

文武王代(661~681)에 蒲鞋爲業으로 밤이면 端身正坐하여 念佛과 觀行을 精修하고 往生한 沙門 廣德의 妻이며, 또 廣德의 친구인 沙門 嚴莊과 同居하기로 하고서도 同寢을 요구하는 嚴莊으로 하여금 精進하여 往生할 수 있도록 충고해 준 芬皇寺의 婢였다고도 하는 그 女人이 十九應身の 하나였다는 것이다. 十九應身이란 法華經 普門品에 說해져 있는 觀音菩薩의 隨機十九應身說法을 가리킨 것이므로 ‘十九應身之一’이란 觀音應化身의 하나였다는 뜻이다.

(4) 憬興國老의 治病(南巷寺 觀音의 應驗)

神文王代(681~692)의 大德 憬興은 國師로서 三郎寺에 머물어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한 달이 되어도 낫지 않았다. 어느 날 한 尼僧이 그를 찾아와서는 華嚴經중의 善友原病之說을 말하면서, “지금 스님의 병환은 憂勞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嬉笑하면 낫게 됩니다.”하고, 곧 열 한 가지의 얼굴 모양을 지어서 俳諧의 춤을 추는데 그 태도의 변화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으며 너무나 우스워서 턱이 빠져나갈 지경이었다. 그것을 보는 憬興은 어느 새에 病이 씻은듯이 나아버렸다. 그러자 尼僧은 문 밖으로 나갔는데 南巷寺로 들어가 숨었으며, 그가 가졌던 지팡이는 十一面圓通(觀音)像의 幀畫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⁴⁾

(5) 仁容寺의 觀音道場

文武王의 아우 金仁問이 唐에서 獄에 갇혔을 때 新羅에서는 仁容寺를 짓고 觀音道場

2) 遺事에 ‘休醜□和尚’이라 하여 醜와 和尚 사이에 1字가 不明字로 빠져 있는데, 이는 아마 醜字이리라 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休醜醜和尚’이라고 靑鳥가 元曉를 부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뜻으로 풀이하면 ‘醜醜의 眞味를 놓쳐버린 스님이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醜醜는 精純한 牛酪으로서 그 맛이 甘美롭고 더욱 滋養分이 풍부한 것인데, 특히 佛敎에서는 衆病通治의 妙藥이라 하여 醜醜를 最上の 正法 또는 佛性에 비유한다.

“譬如從牛出乳 從乳出酪 從酪出生酥 從生酥出熟酥 從熟酥出醜醜 醜醜最上 若有服者衆病皆除 …… 言醜醜者 喻於佛性.”(大般涅槃經 卷14 聖行品 第7之4一, 新修藏 第12卷 p.449 및 p.690).

3) 遺事 卷3 塔像 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4) 遺事 卷5 感通 7, 憬興遇聖.

이 說話는 高麗 了圓의 ‘法華靈驗傳’ 卷下 顯比丘尼身 條에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海東高僧傳’ 第5에서 引用 轉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顯比丘尼身’의 이야기는 遺事 所傳의 憬興遇聖 條 說話와 內容은 같으나 敘述上 약간의 차이가 있다.

5) 遺事 卷2, 文虎王 法敏.

을 開設하였다는 것이다.⁵⁾

(6) 栢栗寺 大悲像의 應驗

栢栗寺의 大悲(觀音)像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매우 靈異함이 많았는데 혹은 中國의 神匠이 衆生寺의 觀音像과 함께 만들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 法堂 앞 들바닥 위에는 발자욱이 나있는데, 이 발자욱은 일찌기 大聖(觀音)이 切利天에 올라갔다가 돌아와 法堂으로 들어갈 때 밟은 자욱이라고도 하고, 또 觀音이 夫禮郎을 救하여 돌아왔을 때 남긴 자취라고도 한다.

天授 3年 즉 孝昭王 元年(692) 9월에 國仙이 된 夫禮郎은 이듬해 3월에 千명의 郎徒를 거느리고 金蘭으로 놀이를 갔다가 北溟의 경계에서 狄賊에게 잡혀갔는데, 郎徒들이 모두 어쩔줄을 모르고 돌아왔으나 오직 僧侶郎徒⁶⁾인 安常만이 홀로 國仙을 구하기 위하여 뒤쫓아 갔다. 그 때 나라에서는 또 護國神寶인 琴笛까지도 잃어서 國王은 매우 놀라고 크게 근심하였다. 한편 國仙 夫禮郎의 兩親은 栢栗寺의 大悲像 앞에서 정성스레 祈禱하였는데 갑자기 香卓 위에 琴笛 二寶가 놓이면서 國仙과 安常 두 사람이 大悲像의 뒤에 이르러 있었다. 기뻐 어쩔줄 모르는 그 부모에게 夫禮郎은 琴笛을 가진 容儀端正한 한 스님이 와서 위로하면서 고향으로 가고싶거든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그를 따라 오다가 도중에서 安常을 만나고 琴笛을 각각 타고 바다를 건너서 잠깐 사이에 이리로 오게 되었다는 전말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결국 그 異僧은 栢栗寺의 觀音이었다는 것이다.⁷⁾

(7) 白月山 二聖의 成佛을 도운 娘子現身

景龍 3年 즉 聖德王 8年(709) 4月 8日 저녁에 20세쯤 되는 예쁜 娘子 하나가 檀檀朴朴스님이 修道하고 있는 北庵에 이르러 재워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朴朴은 蘭若(精舍)는 깨끗한 곳이라 女人이 들어 올 곳이 아니라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버리므로, 娘子는 南庵으로 가서 修道僧 努盼夫得에게 똑같은 청을 하였다. 그러자 夫得은 이 곳에 婦女가 들어와서는 안되지만 衆生을 隨順하는 것이 菩薩行의 하나이므로 어둔 밤 窮谷에 모른척 할 수 없다하여 재워주기로 하였는데, 한밤중에 娘子는 產憂가 있다하여 夫得에게 아기 받을 준비를 해달라 하고는 아이를 낳은 뒤에 또 목욕을 시켜달라고 청하였다. 夫得은 哀憫의 情으로 盆槽 안에 女人을 앉히고 더운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는데, 갑자기 浴槽 속의 물이 香氣가 郁烈하면서 金液으로 변해졌으므로 夫得은 크게 놀랐다. 그러자 女人은 夫得을 억지로 권하여 함께 목욕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랐더니 홀연히 精神이 爽涼해지고 피부가 金色으로 되었으며 그 곁에는 갑자기 蓮臺가 하나 생겨났다. 이에 女人은 夫得에게 蓮臺에 앉기를 권하고,

6) 이 安常이 一般(13·4세~17·8세의 少年)郎徒가 아닌 僧侶郎徒였다는 것을 일찌기 拙稿 '彌勒仙花攷'(佛教學報 第3·4合輯) 및 '僧侶郎徒考'(佛教學報 第7輯) 등에서 밝힌 바가 있다.

7) 遺事 卷3 塔像 4, 栢栗寺.

“나는 觀音菩薩인데 大師의 大菩提를 이루도록(成佛을) 와서 도운 것이다.”
하고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夫得이 彌勒佛로 된 뒤 浴槽의 남은 金液에 朴朴도
묵욕하여 無量壽佛이 되었으므로 觀音은 결국 二聖의 成佛을 도운 것이 된다.⁸⁾

(8) 敏藏寺 觀音의 應現

禺金里에 寶開라는 貧女가 있었는데 그 아들 長春이 海上으로 장사나간지 오래토록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 女人은 敏藏寺 觀音 앞에 가서 4日을 祈願하였더니 홀연 아
들 長春이 돌아왔다. 長春은 그 때 海中에서 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져서 同侶는 모두
難을 당하고 오직 혼자 隻板을 타고 吳國 바닷가에 닿아서 그 곳 吳人의 일을 해주고
있었다. 하루는 鄉里에서 온 것같은 한 異僧이 長春을 은근히 위로하고는 같이 데리고
어떤 深渠 앞에 이르러 長春을 거드랑에 끼고 건너뛰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
느 새 鄉里에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吳國을 떠난 것이 哺時(申時)이었는데 겨
우 戌時 初에 이 곳을 도착하였다는 것이며, 그 때가 天寶 4年 즉 景德王 4年 乙酉
(745) 4月 8日 이었다는 것이다.⁹⁾

(9) 盲兒가 눈을 뜨다.

景德王代(742~765)에 漢岐里에 사는 希明이란 女人의 아이가 다섯 살이 되어 갑자기
눈이 멀어졌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芬皇寺 左殿 北壁의 千手大
悲畫像 앞으로 가서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불러 祈禱하게 하였더니 눈이 도로 밝아졌다
는 것인데, 그 노래는 대략 다음과 같은 뜻으로 되어 있다.

“무릎 꿇고 두 손바닥 모아 千手觀音 전에 비읍니다. 천손 천눈을 하나만 놓아 하나
를 떨어져 둘 없는 나에게 하나라도 내려 고쳐주옵소서. 아아 나를 고쳐주시오면 慈悲
는 크읍니다.”¹⁰⁾

(10) 꿈으로 보여준 大悲의 가르침

僧 調信이 金昕공의 딸을 흠모함이 惑深하여 洛山寺 大悲(觀音) 앞에 누차 가서 그 사
랑이 이루어지도록 물래 빌기를 數年동안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만 곳으로 시집을
가버렸으므로, 調信은 다시 大悲像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지 않았음을
원망하며 해가 저물도록 쉽게 울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여자가
찾아와서 두 사람은 기뻐하며 부부가 되었다. 그로부터 鄉里로 돌아가 40여년을 살아
가는 동안 아이가 다섯이였으나 집이 가난하고 糊口가 어려워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15세 난 큰 아이는 굶어서 죽고 老夫婦는 병들어 굶주려 더 어쩔 수가 없는
데다 10세의 딸이 밥얻으러 나갔다가 개한테 물려 몹시 상처를 입고 울부짖었다. 더
견딜 수 없는 그들은 각각 두 아이씩을 데리고 50년간의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서로

8) 上同,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但桓朴朴.

9) 上同, 敏藏寺 및 ‘法華靈驗傳’ 卷下(16 後~17前) 黑風吹其船舫 條.

10) 上同,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살길을 찾아 비참한 발걸음을 옮기다가 꿈을 깨었다.

꿈에서 깨어난 調信은 人世의 無常을 크게 느껴 貪染의 마음이 얼음녹듯 깨끗이 없어졌고, 聖容(觀音像)을 대함이 부끄러워 懺悔하여 마지않았다. 그 후 그는 淨土寺를 세워 修道에 一念하였다는 것이다.¹¹⁾

(11) 可住處를 가르쳐준 老婦人

孝誠이 지극했던 信孝居士가 出家하여 修道할 住居處를 찾을 때, 길에서 한 老婦人을 만나 적합한 곳(可住處)을 물으니, 그 婦人은 가히 居住할 곳을 알려주고는 곧 간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信孝는 觀音의 가르침임을 알고 五臺山에 慈藏이 처음 結茅하여 머물렀던 곳(지금 月精寺)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다.¹²⁾

(12) 衆生寺 大悲像의 靈驗

新羅 古傳에 의하면 中國의 善畫者(名畫工)가 新羅로 와서 衆生寺의 大悲像을 造成하였다는 것인데, 이 大悲像을 國人이 瞻仰하여 禱禱獲福함이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新羅末 天成年中(926~929, 즉 景哀王 3年~慶順王 3年)에 正甫 崔殷誠이 아들이 없어서 이 大悲像에 祈禱하여 生男하였는데, 그 후 석 달이 채 못되었을 때 後百濟軍이 京師를 쳐들어와 城안이 크게 어지러웠으므로 崔殷誠은 아기를 안고 大悲像 앞으로 가서,

“난리가 일어나 일이 급하므로 이 갓난애를 온전하게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大聖께서 진실로 이 아이를 내려주셨다면 원하옵건대 大悲의 힘으로 覆養하여 주셔서 우리 父子가 다시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는 아기를 襁褓에 싸서 大悲像의 座下에다 감추어두고 피난길을 떠났다. 그 뒤 半月이 지나 敵寇가 물러간 후 그는 衆生寺로 가서 大悲像의 座下를 살펴 보았더니 아기의 피부는 새로 목욕시킨 것 같고 건강한 모습으로 입가에는 지금껏 먹은 밥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기를 집으로 안고 가서 잘 키웠는데, 그가 高麗 初에 正匡 벼슬에까지 올랐던 崔丞魯였다는 것이다.¹³⁾

이 밖에도 ‘感通 7 郁面婢 念佛西昇’條의 ‘按 僧傳’下에,

“棟梁 八珍은 觀音의 應現인데, 一千의 徒로 結社하여 두 반으로 나누어 하나는 勞力하고 하나는 精修하게 하였다.”고 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¹⁴⁾

11) 註 3)과 同條이나 說話內容과 年代가 전연 다르므로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調信의 年代는 자세히 않다.

12) 上同, 臺山月精寺 五類聖衆. 孝信居士의 年代도 자세히 않다.

13) 上同, 三所觀音 衆生寺.

여기에 옮긴 것 외에도 遺事의 本條에는 衆生寺 大悲像의 靈驗事實 몇 가지를 收錄하여 있으나, 모두 高麗代의 것이라 新羅의 信仰史實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다.

14) 觀音의 應現이라는 八珍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景德王代의 인물인 郁面婢가 八珍의 千徒중 한 사람으로서 戒를 지키지 못하고 畜生道에 떨어져 淨石寺의 소가 되었다가, 經을 읽고 간功德力으로 阿干 貴珍家의 婢가 되었다는 것이니, 八珍은 景德王代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遺事 同條의 讓曰에서 撰者(一然)는 徵의 本傳에 의하면 哀莊王時로 되어있다 하여 그 어느 時代가 옮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여 있다.

2. 經典所說의 觀音菩薩

이상에서 우리는 遺事에서 볼 수 있는 新羅代의 觀音信仰에 관한 資料들을 모두 摘出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諸資料를 통한 新羅의 觀音信仰과 그 思想을 考察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觀音菩薩 그 자체에 대하여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經典에 說하여 있는 觀音菩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觀音은 觀世音菩薩의 略稱인데, 범어 Avalokiteśvara(漢音; 阿縛盧枳低濕伐羅)를 意譯한 말이다. 이 밖에 光世音·觀自在·觀世自在·觀世音自在·觀世自在者·闍音·現音聲 등으로도 번역한다. 이 觀音에 대해서는 방대한 大乘佛典의 諸部에 거의 들어있지 않은 經類가 없다고 할만큼 널리 보이고 있으며, 또 모든 宗派에 있어서도 이 菩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觀音菩薩에 대하여 說하고 있는 여러 經典을 통하여 우리는 觀音을 다음에서와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으리라고 본다. 즉 하나는 救苦利生の 現世의인 大悲菩薩이라는 면에서이며, 또 하나는 極樂世界에서 阿彌陀佛을 모시고 佛國莊嚴과 群生教化를 도우는 西方淨土의 菩薩이라는 면에서 이다. 물론 圓通教主¹⁵⁾라고까지 하는 觀音菩薩에게 있어서 此土와 他方國土가 따로 있을리 없고 또 現世와 極樂世界를 전연 별개의 것으로 分離하여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서는 便宜上 經典에서 볼 수 있는 性格面을 중심으로 하여 救苦利生の 現世菩薩로서의 觀音과 彌陀佛 脇侍의 西方淨土菩薩인 觀音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대략을 보고자 한다.

(1) 救苦利生の 大悲菩薩

觀音菩薩이 娑婆世界에서 衆生の 苦難을 救濟하며 人間을 利益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說하고 있는 經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具體的으로 보이고 있는 代表的인 것으로는 法華經의 普門品과 楞嚴經의 觀音圓通說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普門品の 內容을 간략하게 보기로 한다.

① 普門品¹⁶⁾

無盡意菩薩의 물음에 대하여 佛이 答說한 것으로서,

단약에 觀世音菩薩의 名號를 持·稱하면 大火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大水에도 漂流되지 않으며, 夜叉 羅刹도 괴롭힐 수 없고, 刀杖은 부러지며, 杻械枷鎖는 끊어져 부서지고, 無畏를 베풀며 貪瞋痴를 여이게 하고, 求男求女를 뜻에 따라 얻게하며, 또 이 菩薩의 名號를 受持하여 한 때라도 禮拜恭敬하면 62億 恒河沙數의 菩薩 이름을 受持하여

15) 觀音을 圓通大士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우리 佛家の 禮敬文에서는 '圓通教主觀世音菩薩'이라고 한다(釋門儀範 上, p. 39 등).

16) '妙法蓮華經 卷第7, 觀世音菩薩普門品 第25'를 普門品이라고 通稱하는데, 이를 觀音經이라고도 하며 오늘날까지도 僧俗間에 많은 持齋를 받고 있다.

供養함과 그 福이 같으며, 또 方便力을 나투어 19應身說法으로 33身을 나투어¹⁷⁾ 衆生을 濟度하므로 觀音菩薩은 大慈大悲의 權化이며 福聚海 無量的 淨聖이라고 하여, 그 普門示現의 神通力을 詳說하여 있는 것이다.

이 普門品이 觀音信仰의 根本의인 所依經典으로 널리 信奉되어 있다.

② 觀音圓通 自說¹⁸⁾

觀世音菩薩이 即從座起하여 佛을 향해 自說한 것으로서,

나(觀音 自身)는 옛날 觀世音佛에 菩提心을 發하고 그 佛의 가르침에 따라 聞思修의 三摩地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고 홀연히 世間·出世間을 超越하여 十方을 圓明하였는데, 이에 두 가지의 殊勝을 얻었으니 하나는 위로 十方諸佛의 本妙覺心에 契合하여 佛·如來로 더불어 慈力이 同一하고, 둘째는 아래로 十方의一切六道衆生에 契合하여 諸衆生과 함께 悲仰함이 같으며, 前者에 의하므로 32應身¹⁹⁾을 나투어 諸國土에 들어가 각각 說法하여 衆生을 解脫成就케 하고, 後者에 의하므로 諸衆生으로 하여금 나의 身心에서 14種의 無畏功德을 얻게하여 十方의 苦惱衆生이 그 音聲을 觀하면 곧 解脫을 얻으며, 설혹 大火에 들어가더라도 능히 태우지 못한다는 등 14의 無畏力을 베풀어 衆生을 福되게 하며, 또 圓通을 얻어서 無上の 道를 修證하였으므로 四不思議의 無作妙德을 얻고 衆生을 救護하여 大自在를 얻게한다고 說한 것이다.

이 楞嚴經의 觀音說은 앞의 普門品처럼 하나의 독립된 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讀誦에 適合하지 않은 탓도 있으나 普門品처럼 널리 持誦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普門品을 觀音經이라 하여 根本 所依經典으로 삼고있는 觀音信仰에 있어서 이 楞嚴經의 觀音部分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觀音菩薩이 普門示現의 救世利生하는 施無畏 圓通大士로서 大慈大悲의 現世菩薩이라는 것은 이제 例舉한 두 가지 經說 외에도 많은 佛典에서 볼 수 있는 일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觀音은 항상 이 娑婆世界의 苦惱衆生 곁을 떠나지 않는 救苦救難의 現實的 利世菩薩로서 널리 信奉 되어왔고 또 많은 信仰을 받고 있다. 華嚴經 등²⁰⁾에서는 印度의 南海 補陀洛山을 觀音의 住處로 하고 있다.

(2) 西方 彌陀佛의 脇侍菩薩

그러나 觀音菩薩이 娑婆此土가 아닌 西方의 極樂世界에 常住하면서 彌陀의 脇侍菩薩

17) 觀音의 19應身說法이란 普門品에, “若有國土衆生 應以佛身得度者 觀世音菩薩 即現佛身而爲說法”이라는 이 “應以……身得度者 即現……身而爲說法”이 19類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33身이란 이 19應身說法 가운데 33種의 身分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8)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 首楞嚴經 卷第6’에 있는 觀音圓通에 대한 自說 部分.

19) 앞의 普門品에서는 32應身이었는데, 여기서는 32應身으로 되어 있다. 33身중에서 다른 것은 다 같은데, 맨 끝의 執金剛神 하나가 없기 때문에 楞嚴經에서는 32應身인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들 觀音의 32應身으로 알고 있는 것은 楞嚴經에 의한 것이며, 普門品에서는 19應身說法 33身이 옳은 것이다.

20) 舊華嚴經 第51에는 光明山으로 되어 있고, 新華嚴經 第68에는 補陀洛迦山이라 있으며, 大唐西域記 第10에는 布呾洛迦山이라고 하여 있다.

로서 그 教化를 輔翼한다고 說한 經典도 적지 않다. 그와 같은 說은 주로 彌陀淨土 계통의 經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몇 經說을 보기로 한다.

① 無量壽經 卷下에는,

“그 無量壽佛國(極樂)의 菩薩에는 가장 最尊의 두 菩薩이 있어서 그 威神의 光明이 三千大千世界를 두루 비추는데, 하나는 이름이 觀世音이고 다음은 大勢至이다. 이 두 보살은 이 國土에서 菩薩行을 닦고 命이 다해 轉化하여 그 佛國에 났다.”²¹⁾고 하여 있다.

② 大阿彌陀經²²⁾ 卷上에는,

“阿彌陀佛國의 諸菩薩중에서 最尊의 두 菩薩이 항상 彌陀佛의 左右에 모시고 앉아서 正論하며 彌陀佛도 항상 두 菩薩과 함께 對坐하여 모든 일을 議論한다. 그 菩薩 하나는 이름이 蓋(廬)樓亘(觀世音)이며, 하나는 摩訶那鉢(大勢至)이다.”²³⁾라고 있다.

③ 觀世音菩薩授記經에도, “西方의 安樂世界에 阿彌陀佛이 說法하고 있으며, 거기에 觀世音과 大勢至의 두 菩薩이 있다.”²⁴⁾고 하였다.

그리고 觀無量壽經²⁵⁾에서는 16觀중의 第10觀에서 觀音菩薩의 眞實色身相好를 詳說하고, 또 觀音이 極樂에 往生하려고 願하는 者의 命終時에 諸聖衆과 함께 來現하여 金剛臺·紫金臺·金蓮華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하여 간다는 것을 說하여 있다.

이와 같은 彌陀淨土 經典 외에 密敎部の 陀羅尼集經²⁶⁾ 등에서도 觀音이 大勢至와 함께 彌陀佛의 左右協侍菩薩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觀音은 此土와 他方이라는 전연 별개의 兩面性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同一한 菩薩임에는 틀림이 없다. 救世利生の 無碍自在하는 圓通大士이기 때문에 此土와 他方의 差別이 있을 수 없고 普門示現의 大悲 自在者이므로 어디에든 그 몸을 나타주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3. 觀音信仰의 新羅的 展開

앞에서 摘出해 본 遺事 所傳의 觀音靈驗史實을 통하여 우리는 新羅 觀音信仰의 展開

21) 佛說無量壽經 卷下(新修藏經 第12卷 p.237·中),

“佛告阿難 彼國菩薩 皆當究竟一生補處…… 彼佛國中…… 有二菩薩最尊第一 威神光明普照三千大千世界 阿難白佛 彼二菩薩其號云何 佛言 一名觀世音 二名大勢至 是二菩薩 於此國土修菩薩行 命終轉化生彼佛國。”

22) 여기서의 大阿彌陀經은 ‘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支謙 譯)을 가리킨 것이다. 이 經은 經名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단지 阿彌陀經이라고만 하였는데, 阿彌陀經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大阿彌陀經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밖에 宋의 王日休가 ‘無量清淨平等覺經’과 ‘無量壽經’ ‘無量壽莊嚴經’ 및 支謙 譯의 이 大彌陀經의 4經을 校輯하여 따로 한 經으로 만든 ‘佛說大阿彌陀經’ 2卷이 있어서 이와 혼동되기가 쉽다.

23) 新修藏 第12卷, p.308·中.

24) 上同, p.353·下.

25) 上同, pp.343·下~346·中.

26) 陀羅尼集經 卷第2 阿彌陀佛大思惟經說序分 第1(新修藏 第18卷, No.901).

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대강 항목을 나누어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觀音信仰의 新羅의 展開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洛山道場을 중심한 新羅觀音의 確立

아들 얻기를 希願하여 千部の 觀音像을 造成하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는 慈藏法師의 出生談에서는 經說 그대로의 觀音信仰이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아들을 얻고자 觀世音菩薩에게 禮拜供養하면 곧 福德과 智慧를 갖춘 남자 아이를 낳게 된다.”²⁷⁾(若有女人 設欲求男 禮拜供養觀世音菩薩 便生福德智慧之男)

“이 세상의 자식없는 중생이 아들을 얻고자 하면 능히 福德과 智慧의 아들을 낳게 한다.”²⁸⁾(能令法界無子衆生 欲求男者 誕生福德智慧之男)

라고 說하여 있는 法華經 및 楞嚴經의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慈藏이 태어날 때에는 아직 楞嚴經이 傳譯되지 않았으므로²⁹⁾ 당시의 觀音信仰은 法華經 普門品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千部の 觀音을 造成하여,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法海의 津梁이 되게 하겠읍니다.”하고 希願하여서 낳은 아들 善宗郎(慈藏)이 과연 나중에 唐人까지도 濟度하고 歸國하여 大國統으로 新羅의 佛法을 크게 일으켰던 福德과 智慧의 大丈夫였었다. 이 사실은, “아들을 얻고자 하여 觀世音菩薩에게 禮拜供養하면 곧 福德과 智慧의 남자를 낳게 된다.”고 있는 經說 그대로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慈藏의 出生談에서 아주 순수한 法華經 普門品の 觀音信仰과 그 靈驗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洛山 觀音說話를 통하여 新羅의 觀音信仰이 華嚴經의인 영향 및 此土(新羅) 觀音의 信仰의 定着으로 展開되어 있음을 보게된다 할 것이다.

洛山寺의 緣起(聖岫 觀音)說話에 의하면, 義湘이 入唐求法에서 돌아와 이 山의 海邊窟內에 觀音眞身이 住한다는 말을 듣고 西域(印度)의 寶施洛伽山(觀音眞身住處) 이름을 따라 洛山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 때 義湘은 이 岫內에서 水精念珠를 받고 다시 觀音眞身을 보게 되었으며, 그 가르침에 따라 山 위에 다가 殿堂을 짓고 觀音塑像을 모셨다는 것이다. 처음 殿堂을 지으려 했을 때 湧出하였던 雙竹이 殿堂 및 觀音塑像安置가 이루어지자 사라지므로써 義湘으로 하여금 정말 眞身의 住處임을 알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洛山의 海邊窟內에 觀音眞身이 머물고 있으며, 이 洛山을 觀音眞身의 根本道場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洛山에 常住하고 있는 觀音이

27) ‘妙法蓮華經’ 卷第7, 觀世音菩薩普門品 第25(新修藏 第9卷 p.57·上).

28) ‘首楞嚴經’ 卷第6(新修藏 第19卷 p.129·中).

29) 楞嚴經은 唐의 神龍 元年(新羅 聖德王 4年) 乙巳(705)에 漢譯되었다.

야말로 이 땅(新羅)의 觀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西方의 彌陀佛國에 常住하면서 彌陀佛을 脇侍하는 菩薩로서의 觀音도 아니며, 印度 南海岸의 補陀洛山에 常住한다는 印度의 觀音도 아닌 이 땅에 住處를 둔 新羅의 觀音이라는 것이다. 이 新羅의 觀音住處인 洛山은 聖師元曉에 의하여 한번 더 확인이 되고, 다시금 이 땅의 觀音으로 證明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義湘이 聖岬에서 眞身을 親見하고 洛山에 殿堂을 지어 觀音像을 安置하고 그 곳을 떠난 뒤에, 元曉가 眞身에 瞻禮코자 그 곳으로 가서 觀音의 現身을 만났다는 이 說話는 그대로 洛山이 觀音眞身の 住處이며 여기에 常住하는 眞身은 틀림없는 이 땅의 觀音임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元曉는 義湘과 매우 가까웠던 당대의 高僧이었고 또 義湘보다는 年上の 先輩였었다. 그러한 元曉가 義湘이 비로소 開設한 新羅의 觀音道場에 와서 眞身과 만나므로서 그것을 證明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 洛山觀音說話에서 매우 흥미롭고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보게된다 할 것이다.

義湘이 聖岬로 들어가 觀音眞身을 親見하고 그 지시에 따라 洛山寺殿堂을 세워 觀音像을 奉安하였다는 등의 사연은 바로 이 땅의 觀音道場 設定과 新羅 觀音信仰의 定着을 보인 說話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設定 確立된 이 땅 新羅의 觀音을 元曉法師가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元曉가 처음 洛山寺를 찾아왔을 때 그 南郊의 논에서 벼를 베는 白衣女人과 또 橋下에서 빨래하는(月水帛을) 女人을 만나 각각 수작을 건네었고, 나중에 洛山寺 觀音像 앞에 와서 비로소 그들 여자가 觀音의 眞身임을 알았다고 있다. 다시 말해서 眞身을 瞻禮하러 찾아온 元曉를 觀音은 벼 베는 女人으로 나투어 맞이하였고 또 짓궂게 빨래하는 여인으로 나타났으나 끝내 眞身임을 몰라보므로, 觀音은 소나무 위의 靑鳥로 나투어 元曉를 일깨우고는 다시 한 짝의 신(鞋)을 나무 밑과 觀音像의 座下에 각각 벗어 보이므로써 비로소 그 정체를 알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별로 뜻이 없는 것으로 보기 쉬우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여기에서 觀音의 遊戲三昧³⁰⁾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觀音菩薩이 이 세상에 노닐면서(遊此娑婆世界) 19應身(33身)說法으로 갖가지의 형상을 나투어 諸國으로 다니며 증생을 구제(……以種種形 遊諸國土 度脫衆生)하고,³¹⁾ 이와 같은 自在의 神力으로 娑婆世界에 노니는 觀音菩薩³²⁾이기 때문에 벼를 베는 女人으로 또는 빨래하는 여인으로

30) 美島大來 著 '觀音開扉論'에는 “大慈與樂의 遊戲三昧” 또는 “遊戲三昧는 大乘佛敎 最後의 目的이며, 吾人 人類의 最後의 樂園이 아니면 안된다.”(p.50)라고 있으며 또,

“遊한다는 것은 遊戲三昧의 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生活을 아무런 障礙도 없이 계속 이어가게 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度他는 바른 生活의 最勝한 것이다.”(同, p.52).

“遊戲三昧 應機度他行으로 되는 것이다.”(同, p.53)라고 하여 있다.

31) '妙法蓮華經' 普門品 (新修藏 第9卷 p.57·中).

32) 上同(上同, p.57·下).

“觀世音菩薩 有如是自在神力 遊於娑婆世界.”

몸을 나누어 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遊戲三昧로서 觀音은 洛山이 이 땅의 眞身住處임을 元曉에게 일깨워주려고 現身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元曉는 그 두 女人이 觀音眞身の 化現임을 안 뒤에 다시 眞容을 빚고자 海邊의 聖龕로 들어 갈려고 하였다. 그러나 風浪이 크게 일어서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觀音의 眞身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더 만나 볼 필요가 없으므로 觀音이 元曉를 聖龕로 못들어 가게 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說話에서 義湘은 聖龕로 들어가 眞容을 親見하였으나 元曉는 아예 聖龕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으며, 또 義湘이 이 곳을 다녀간 뒤에 元曉가 그 곳으로 瞻禮하러 왔다는 것 등을 통하여, 元曉보다는 오히려 義湘의 法力이 더 훌륭하고 또 觀音信仰에 있어서 義湘의 편이 더 앞선 先驅者的인 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 說話는 오히려 義湘이 設定하고 마련해 놓은 觀音住處의 根本道場에 그의 先輩이며 當代 最高의 知性이라 할 元曉가 그 觀音을 確認하고 眞身住處임을 證明한 이야기로 보아야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說話를 통하여 義湘은 新羅의 觀音 및 그 根本道場의 設定 開創者요, 元曉는 그 證明法師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義湘은 觀音信仰의 新羅的 確立者이며, 元曉는 그 證明者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로부터 洛山에 根本道場을 둔 이 땅의 觀音이 新羅의 坊坊谷谷에서 有緣의 衆生을 濟度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이 곳 海邊窟內에 觀音眞身이 住하기 때문에 印度의 寶陀洛伽山(小白華山) 名을 따서 洛山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白花道場發願文略解’³³⁾에 의하면,

“師(義湘)가 洛山 觀音窟을 찾아가 禮拜하고 發願하여 이 글(白花道場發願文)을 지었다.”³⁴⁾고 있으며 또,

“華嚴經 貞元本 第16卷에는 ‘觀自在菩薩이 補怛洛迦에 있다’고 하며, 淸涼(澄觀)의 疏釋(華嚴經疏)에는 ‘補怛洛迦란 漢譯하여 小白花樹라 하는데 이 산에 이 나무가 많아서 香氣가 멀리까지 나며 이 향기를 맡고 꽃을 보면 반드시 欣快해지므로 불인 이름이라 하였다.’³⁵⁾라고 하여 있다.

이에 의한다면 洛山이라고 이름한 것이 華嚴經 所說의 觀音住處인 補怛洛迦(寶陀洛伽)

33) ‘白花道場發願文略解’는 義湘의 ‘白花道場發願文’을 高麗의 木庵 體元이 致和 元年 戊辰(忠肅王 15年·1328) 10월에 海印寺에서 集解한 것으로 元統 2年 甲戌(忠肅王 復位 3年·1334) 7월에 雞林府에서 開板한 것이 現存한다.

34) “師詣洛山觀音窟 禮拜發願而述斯文也。”(上記 略解, 初頭 1張).

35) “華嚴貞元本經第十六卷云 觀自在菩薩在補怛洛迦。淸涼疏釋云 補怛洛迦者 此云小白花樹 山多此樹香氣遠聞 聞見必欣故以爲名。”(上同, 2張 前業).

의 山名을 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四十卷華嚴(貞元本)과 八十卷華嚴(新譯經)에는 모두 觀音의 住處를 補怛洛迦山이라고 하여있음은 물론이다. 그러기 때문에 華嚴大家인 義湘이 華嚴經 所說의 觀音住處인 補怛洛迦山 名을 따서 洛山이라고 이름하였다는 것은 얼핏보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길 수가 있다. 따라서 義湘이 確立한 新羅의 觀音道場인 洛山과 그 觀音說話는 바로 華嚴經에 있는 觀音信仰에서 영향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兩經(八十華嚴·四十華嚴)은 義湘이 唐에서 돌아온 훨씬 뒤에 번역되었었다. 四十華嚴은 義湘(625~702)의 死後 96년 뒤에 譯出되었으므로³⁶⁾ 말할 나위도 없지 마는 그의 入寂 3년 전에 완성을 보았던³⁷⁾ 新譯經도 그가 생전에 入手하였던지도 의문이다. 보다도 義湘이 처음 唐에서 돌아와 眞身을 親見하고 洛山寺(殿堂)를 創建하여 觀音像을 安置한 뒤에 元曉가 그 곳을 다녀갔다고 있으니, 그 때는 아직 新譯經이 번역되기 훨씬 이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왜냐 하면 元曉(617~686)의 寂後 13년 뒤에 新譯經이 譯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義湘의 入唐時와 元曉의 在世時에 流布되어 있었던 華嚴經은 舊譯 60卷經³⁸⁾이었다. 이 舊譯經에는 觀音의 住處가 補怛洛迦山으로 되어 있지 않고 光明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義湘이 唐에서 歸國한 직후와 元曉의 在世時에는 華嚴經에 觀音의 住處가 光明山으로 되어 있을 뿐 補怛洛迦山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그 때 補陀(怛)洛迦의 山名을 따서 洛山으로 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華嚴經에서 따온 이름이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義湘의 在唐時에 觀音의 住處로서 布怛洛迦山이라 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즉 義湘의 入唐 이전에 이미 印度를 다녀왔던 玄奘(600~664)의 大唐西域記³⁹⁾에는, “秣羅矩吒國의 南海濱에 秣刺耶山이 있고 그 동쪽에 布怛洛迦山이 있다.”고 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流布되어 있던 華嚴經에는 분명히 光明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義湘이 唐에서 돌아와 新羅의 觀音眞身道場을 補怛洛迦山의 이름을 따서 洛山이라 하였다는 것은 華嚴經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洛山의 觀音道場設定이 華嚴經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면 洛山이란 山名은 元曉의 寂後 훨씬 뒤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義湘이 海邊聖嶋로 찾아가 觀音眞身을 親見하였다는 이야기는 華嚴經에서 영

36) 40卷華嚴經(般若譯)은 唐의 貞元 12年(新羅 元聖王 12年·796)~14年(同 14年·798)에 번역되었다.

37) 新華嚴經(實叉難陀譯)은 唐 嗣聖 12年(新羅 孝昭王 4年·695)~16年(同 8年·699) 사이에 譯成되었다.

38) 舊華嚴經(佛馱跋陀羅譯)은 東晉의 義熙 14年(新羅 訥祗王 2年·418)~元熙 2年(同 4年·420)에 譯出되었다.

39) 大唐西域記 卷第10, 秣羅矩吒國條(新修藏 第51卷 p.932·上).

향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法華經 普門品이나 無量壽經 등의 觀音關係說에는 그와 비슷한 것은 전연 보이지 않고 오직 華嚴經에만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善財童子가 南海 光明山(補怛洛迦山)으로 觀音菩薩을 찾아가 親見하고 無上の 說法을 들었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名稱이야 어떻던간에 觀音住處를 찾아가 眞身을 親見하였다는 것은 華嚴經的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義湘이 洛山の 觀音聖岬에 眞身을 親見禮拜하고 發願하면서 지었다는 白花道場發願文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앞에서 본 白花道場發願文略解에 있는대로 華嚴經에 있는 補怛洛迦山(즉 小白花樹山)의 이름을 따서 白花道場이라 하였다면 이 역시 그 時代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나 白花道場發願文에 대하여서는 따로 考察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그 자세한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洛山이라든지 白花道場이라는 명칭에는 비록 문제가 없지 않다 하더라도, 義湘의 眞身親見과 觀音道場 開設 및 元曉의 確認 證明 등을 보여주고 있는 說話를 통하여 우리는 新羅 觀音信仰의 定着을 볼 수가 있다 할 것이다. 이로부터 新羅(이 땅)의 觀音이 南海(補陀洛山은 印度의 南海岸에 있다.)가 아닌 東北方의 海邊 洛山(江原道 襄陽)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新羅的인 觀音信仰이 確立되어 그 展開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觀音은 女人(19應身の 하나)의 몸을 나누어 沙門의 淨土往生을 도움고 (廣德妻), 또 新羅의 부처(彌勒·彌陀佛)를 成佛케 하는 등, 新羅觀音으로서의 現實的인 面貌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2) 十一面 및 千手觀音의 信仰

① 十一面觀音信仰

景興法師가 南巷寺 十一面圓通像의 應現에 의하여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에서 新羅에서의 十一面觀音信仰을 엿볼 수가 있다 할 것이다.

十一面觀音信仰의 所依經이라고 할 수 있는 ‘十一面觀世音神呪經’에는 다음과 같이 十一面觀音에 대하여 說하고 있다. 즉 觀音菩薩이 佛에게 白言하기를, “世尊이시여, 저에게 十一面이라고 이름하는 心呪가 있습니다. 이 心呪는 十一億 諸佛이 說하신 바로서, 내가 지금 一切衆生을 위하고, 一切衆生으로 하여금 善法을 念하게 하기 위하고, 一切衆生으로 하여금 憂惱를 없게 하기 위하고, 一切衆生의 病을 없애고자, 一切의 障難災怪와 惡夢을 除滅하고자, 一切의 橫病死를 없애고, 一切의 諸惡心者로 하여금 惡心을 없애고 調柔하게 하고자, 一切의 諸魔 鬼神을 除하여 障難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이것을 說하는 것입니다.”⁴¹⁾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40) 唐 慧苑의 新華嚴經音義 卷下에도, “山名 補怛洛迦 此翻하여 小花樹山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 山中에 많은 小白花樹가 있어서 그 꽃이 매우 향기로워 멀리까지 미치지 때문이다.”라고 하여 있다.

41) 耶舍崛多 譯 ‘佛說十一面觀世音菩薩神呪經’(新修藏 第20卷 p. 149·上).

그리고 同經에서는 十一面觀音의 形像에 대하여,

“모름지기 白旃檀으로써 觀世音의 像을 만들 것이다. 身長은 1尺3寸으로서 11의 頭를 만든다. 앞쪽의 3面을 菩薩 얼굴로 만들고, 왼쪽의 3面을 성년 얼굴(嶼面)로 만들며, 오른쪽의 3面은 菩薩의 얼굴에 狗牙가 위로 나오게 하고, 뒤의 1面은 大笑의 얼굴을 만들며, 頂上의 1面은 佛面을 만든다. 얼굴은 모두 앞을 향하고 後光을 붙인다. 그 11面에는 각기 華冠을 씌우고 그 華冠중에는 각각 阿彌陀佛을 모신다.

觀世音은 左手에 澡瓶을 쥐었는데 瓶口에는 蓮花가 나와 있으며, 그 右手를 펴서 瓔珞을 꿰었는데 施無畏手이다. 그 像의 몸에는 瓔珞莊嚴을 刻出할 것이다.”⁴²⁾라고 하여 있다.

이 經에 의한다면 觀音菩薩이 11面이라는 心呪가 있기 때문에 11面觀音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11面觀音이란 11面心呪의 觀音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1面觀音이라고 하여 전혀 별개의 觀音이 아니라 단지 觀音菩薩이 지니고 있는 11面心呪의 면을 중심으로 하여 일컫는 觀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音을 形像으로 造成할 때에는 經說 그대로 11의 머리(얼굴) 및 諸莊嚴을 갖춘 觀音像을 만들어야 한다고 있다. 이러한 觀音像을 11面觀音像이라고 하는데, 실은 11面心呪를 지닌 觀音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 하나의 頭面을 가졌다고 하여 11面觀音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11面心呪를 가진 觀音을 形像으로 만든 것이 11面觀音像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즉 觀音의 11面心呪를 상징한 것이 11面觀音像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11面觀音의 信仰이 언제부터 新羅에 들어왔는지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十一面觀世音神呪經’은 北周의 武帝(561~578) 때에 번역되었고, ‘十一面神呪心經’(玄奘 譯)은 唐의 高宗 顯慶 1年(656)에 번역되었으며, ‘陀羅尼集經’(十一面觀世音神呪經)은 唐의 永徽 5年(654)에 阿地瞿多(無極高)가 번역하였고, ‘十一面觀自在菩薩心密言念誦儀軌經’(不空 譯)은 唐의 玄宗~代宗(712~779)간에 번역되었다.

이들 經典이 中國에서 번역된 다음에 이 11面觀音의 信仰이 新羅에 전해졌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新羅統一 직후의 碩德인 智仁과 道倫이 각각 十一面經疏를 撰述하였다는 사실⁴³⁾이 보이고 있으니, 이것을 통하

42) 上同(上同, p. 150·下).

이 밖에 ‘十一面觀自在菩薩心密言念誦儀軌經’ 卷下에도 十一面觀音像이 說해져 있으나, 4臂 11面像으로 되어 있다.

43)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 2222, 勝寶 3(東洋文庫論叢 第10輯 附錄 p. 115)에는 智仁의 撰으로 十一面經疏 1卷이 보이고 있으며,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新修藏 第55卷 p. 1152·下) 및 ‘注進法相宗章疏’(上同, p. 1141·中)에는 道倫의 撰으로 역시 十一面經疏 1卷을 보이고 있다.

여 新羅에는 信仰 뿐만이 아니고 十一面觀音經의 研究까지도 행해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憬興法師의 병을 治愈하기 위하여 應現하였다는 南巷寺의 幀畫 十一面觀音像을 미루어서도 통일적후가 아니면 그 전후해서 新羅에 十一面觀音이 신앙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 景德王代(742~764)에 創建되었다는⁴⁴⁾ 石窟庵(石佛寺)의 十一面觀音像에서도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南巷寺의 十一面觀音像은 幀畫로 되어 있다. 이 畫像 十一面觀音에 대하여서는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에 자세히 說해져 있다. 즉,

“깨끗하고 하얀 氈, 혹은 紙, 혹은 絹 등에다 摩尼와 與願의 觀自在菩薩像을 그린다. 慈悲의 體로서 몸은 黃金色으로 하며, 頂에는 11面이 있어서 앞쪽의 3面은 菩薩相으로 하고, 오른 쪽의 3面은 白牙가 위로 나온 相, 왼쪽 3面은 忿怒相, 뒷 쪽이 될 1面은 暴笑相, 頂上의 1面은 如來相으로 한다. 菩薩의 本面에는 3目이 있다.”⁴⁵⁾라고 있는 것이다.

南巷寺의 幀畫도 이 千光眼秘密法經에 說해져 있는 畫像作法대로 그렸던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十一面觀音像의 彫刻과 그림의 作法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한 南巷寺의 幀畫 十一面觀音像이 比丘尼로 應現하여 憬興의 병을 낫게하였다는 것이다. 憂勞 때문에 생긴 병이므로 喜笑하면 낫는다고 하여 열 한 가지의 얼굴 모양을 지어서 우스꽝스런 흠을 주었다는 것은 11面觀音의 慈悲救病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열 한 가지의 얼굴모양을 나타낸 것에서 觀音의 十一面心呪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觀音이 十一面心呪를 說하는 것은 一切衆生을 위하여서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一切衆生의 病을 除滅하려는 것(欲除一切衆生病故)도 들어 있다. 그리고 同 十一面觀世音神呪經에는 病을 고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說해져 있다.

“만약 月蝕時에 赤銅鉢에다 牛酥 3兩을 담고, 露地에 있는 觀音像 앞에 黃土의 泥로써 1尺5寸의 團圓으로 塗地하여 牛酥의 銅鉢을 그 위에 놓고, 初蝕時에 誦呪해서 달이 還生하여 본래대로 될 때에 비로소 그치며, 그 다음에 그 牛酥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하고 그것을 다 먹고나면 몸 속에 있는 疾病이 모두 除愈된다.

石雄黃과 雌黃을 草葉 위에 分置하여 觀世音像 앞에 놓고, 1,008遍의 誦呪를 마친 뒤에 暖水에 그 것(石雄黃·雌黃)을 타서 그 물에 몸을 洗浴하면 一切의 障難과 一切의 惡夢과 一切의 疫病이 모두 除愈된다.”⁴⁶⁾고 하여 있다.

44) 遺事 卷5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45) ‘佛說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新修藏 第20卷 p.121·中~下).

46) ‘佛說十一面觀世音神呪經’(新修藏 第20卷 p.151·中).

이와 같이 十一面觀音의 大悲神呪를 誦하면서 疾病과 一切疫病을 除愈하는 방법을 說하여 있지만, 憬興의 病을 낫게한 南巷寺 幀畫 十一面觀音像의 應現인 比丘尼는 그러한 藥物과 誦呪 등의 방법은 쓰지 않고 다만 열 한 가지의 우스꽝스런 춤으로만 병을 고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新羅의인 觀音信仰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시 말해서 十一面觀音에 관한 經典이 중국에서 번역된 뒤에 그 信仰이 新羅에도 들어왔으나, 지금까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信仰되어 온 新羅 觀音의 信仰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오히려 十一面觀音이라는 새로운 信仰의 한 모습을 더 보태어 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義湘 元曉 등에 의하여 確立되고 定着된 新羅의 觀音이 다시금 새로이 十一面이라는 心呪를 지닌 新羅 觀音으로 展開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十一面觀音信仰이 언제 新羅에 들어왔는지는 자세히 알지못하지만 그 傳來는 더욱 新羅 觀音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주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比丘尼로 應現한 新羅의 觀音은 十一面心呪를 춤으로 나타내 보이며 國老 憬興法師의 병을 낫게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② 千手觀音信仰

景德王代(742~765)의 女人 希明이 芬皇寺의 千手大悲畫像에게 祈禱하여 그 어린 아들의 어두운 눈을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에서는 千手觀音의 信仰을 볼 수가 있다.

千手觀音이란 千手千眼觀自在(觀世音)菩薩 또는 千眼千臂觀世音 혹은 千眼千首千足千舌千臂觀自在菩薩의 略稱으로서, 千臂觀音 또는 千光觀自在라고도 하는데 千手와 千眼을 갖춘 觀音을 뜻하는 것이다.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에는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觀世音菩薩이 다시 佛에게 白言하기를, 世尊이시여 내가 생각하오니 過去 無量億劫에 千光王靜住如來라는 부처님이 出世하였는데, 그 佛 世尊이 나를 憐念하고 또 一切衆生을 위하므로 이 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를 說하시고 金色의 손으로 나의 頂上을 쓰다듬으며, ‘善男子야 너는 마땅히 이 心呪를 지니고 未來惡世의 一切衆生을 위하여 널리 大利樂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때 비로소 初地에 住하고 있었으나 이呪를 한번 듣고는 第8地를 뛰어넘었으며, 나는 이 때 마음이 매우 기뻐하므로 곧 誓言을 發하여, ‘만약에 내가 앞으로 능히 一切衆生의 利益과 安樂을 감당할 수가 있는 자라면 나로 하여금 즉시 이몸에 千手千眼을 具足하게 하여 주사이다’ 하고 발원하였더니, 곧 그 때에 千手千眼이 모두 몸 위에 갖추어졌으며, 十方의 大地가 六種震動하고 十方의 千佛이 모두 光明을 놓아 나의 몸을 비추었으며 十方의 無邊世界를 비추었습니다.”⁴⁷⁾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觀音菩薩이 過去에 千光王靜住如來로부터 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를 듣고 一切衆生의 利益과 安樂을 위해 스스로 發誓願하여 그 몸에 千手와 千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千手와 千眼을 갖추었으므로 千手千眼 또는 千手觀音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千手觀音을 說하고 있는 이들 經에는 이 觀音을 念하면 15種의 惡死를 떠나서 15種의 善을 얻게 된다는 등의 衆生利益에 대한 일들이 說해져 있다. 新羅 芬皇寺의 千手觀音에 祈禱하여 盲兒가 눈을 얻었다고 있는데, 이들 千手觀音經에도 眼盲者가 눈을 얻게 되는 방법이 說해져 있다.

즉, “단약에 眼睛(精)을 다친 患者나 靑盲으로 눈이 어둔자나 白暈과 赤膜으로 光明을 잃은 자가 訶梨勒果와 菴摩勒果와 鞞摩勒果의 세 가지를 각각 1顆씩을 찢어서 곱게 갈아야 하는데, 이것을 찢어 빵을 때는 모름지기 부정을 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하므로 婦人이나 猪狗의 아기(새끼)낭는 것을 보아서는 아니되며 입 속으로 念佛을 해야 한다. 그 3果 빵은 것을 白蜜과 사람의 乳汁에 섞어서 眼中에 붙인다. 그 人乳는 반드시 사내아이를 먹이는 母乳를 써야 하며 계집아이를 먹이는 母乳로서는 안된다.

그 약들을 다 섞어서 탄 다음에는 千眼觀音像 앞에 갖다 놓고 1千8遍의 誦呪를 하고 眼中에 붙인다. 滿7일이 되도록 深室에 있으면서 바람을 쐬이지 않도록 조심하면 眼睛도 살아나고 靑盲과 白暈으로 失明한자는 光明을 얻게 된다.”⁴⁷⁾

고 하여 있다.

이와 같이 千手觀音經에는 眼盲者가 得眼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解説하고 있다. 그러나 新羅의 盲兒得眼의 경우에는 그러한 經說의 방법을 썼다고는 보이지 않고 다만 千手觀音像 앞에 정성스레 노래를 불러 기도하므로써 눈을 되찾았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千手觀音의 信仰이 新羅로 들어 온 것은 그 관계 經典이 中國에서 번역된 뒤로부터 엮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은 唐의 貞觀年中(627~649)에 智通이 번역하였으며,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과 ‘千手千眼觀世音菩薩治療合藥經’은 그 年代가 자세치는 않으나 모두 唐의 永徽年間(650~655)에 伽梵達摩(尊法)가 번역한 것으로 보며, ‘千手千眼觀世音菩薩娑陀羅尼身經’은 唐 中宗 景龍 3年(709)의 菩提流志譯이며,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과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呪本’은 唐 玄宗의 開元年中(713~741)에 金剛智에 의하여 번역되었는데, 이

47)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新修藏 第20卷 p. 106·中~下), “……我時心歡喜故即發誓言 若我當來堪能利益安樂一切衆生者 今我即時身生千手千眼具足 設是願已 應時身上千手千眼悉皆具足…….”

48)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新修藏 第20卷 p. 110·中).
‘千手千眼觀世音菩薩治病合藥經’(上同, p. 104·上).

밖에도 同類의 經이 唐代에 적지않게 번역되었다.

新羅에서는 (遺事에) 비록 芬皇寺의 壁畫 千手大悲像에 대한 靈驗談만이 景德王代에 보이고 있지만 역시 統一 직후나 그 전후해서 新羅에도 信仰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千手觀音信仰 또한 新羅의인 展開를 보여 주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것은 단 하나의 事例에 불과하지마는 千手觀音의 畫像 앞에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므로써 盲兒가 光明을 되찾았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十一面觀音이나 이 千手觀音의 信仰은 密敎의인 觀音信仰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新羅에서는 密敎의인 특색보다는 오히려 新羅 觀音으로 同化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내용이 풍부하고 多樣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新羅의 觀音은 또 十一面의 心呪를 지니게 되고, 千手와 千眼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十一面觀音과 千手觀音의 信仰이 각각 별개의 것으로 受容되고 展開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新羅 觀音으로서의 信仰의 展開를 보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救世利生の 無限한 應現

이 밖에 栢栗寺의 大悲像은 僧侶의 몸을 나투어 國仙 夫禮郎과 安常을 구해오고 또 없어진 國寶 琴笛까지도 찾게 하였으며, 敏藏寺의 觀音像은 역시 異僧의 몸을 나투어 海難을 만나 먼 異國에서 故國의 어머니를 그리는 長春을 鄉里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洛山寺의 觀音은 俗情을 끊지 못한 한 愚僧 調信으로 하여금 人生無常을 꿈으로 보게하여 貪染心을 떠나 修道僧 本然의 자세를 되찾게 하였고, 修道할 곳을 찾는 信孝居士에게는 觀音이 老婦人의 몸으로 나타나 住處를 가르쳐 주었으며, 衆生寺의 大悲像은 生男하게 하고 그 아기를 亂中에 半月餘나 젖먹이며 기루었고, 또 觀音은 아릿다운 娘子로 나타나 白月山 골짜기에서 修道하는 두 沙門으로 하여금 新羅의 부처(彌勒佛과 彌陀佛)를 이루게 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靈驗과 應現의 說話들은 한갓 虛荒하고 怪誕한 이야기로 보아 넘기기가 쉽다. 그러나 이와 같은 說話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당시 新羅의 觀音信仰을 보여주고 있는 事實 이상의 眞實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觀音信仰의 참모습과 그 독특한 展開相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觀音이 僧侶의 몸을 나투어 먼 異國에서 新羅의 젊은이(夫禮郎·安常·長春)를 데려오고 또 徒를 結社하여 勞力과 精修를 하게 하였으며(棟梁 八珍), 女人의 몸을 나투어서 眞身道場임을 보이고(洛山 聖女), 往生을 도우고(廣德妻), 병을 고치며(佛譜舞의 比丘尼), 可住處를 알려주고(老婦人), 또 新羅의 부처를 成佛케 하였으며(白月山 娘子), 어리석은 沙門을 꿈으로 일깨우고(洛山 大悲像), 盲兒의 눈을 얻게 하고(芬皇寺 大悲像),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여 돌보는 등 여러 가지로 應現하여 新羅人을 利益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事例들은 觀音의 大悲行이 信仰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의 자취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事例를 통하여서만이 비로소 新羅의 觀音信仰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觀音의 靈應은 新羅人의 信仰의 結實이며 바로 新羅 觀音信仰의 內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洛山道場에서 確立되고 定着된 新羅의 觀音信仰은 다시 十一面觀音과 千手觀音의 信仰을 더하여 곳곳에 나타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손길을 펼쳐 拔苦與樂하는 觀音으로 信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新羅의 觀音은 普門示現하는 圓通 大悲의 菩薩로서 信仰되었고, 또 救世利生의 本願力으로 時空의 制限없이 應現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靈應의 觀音說話는 新羅 觀音의 無限한 應現을 나타낸 信仰의 內容이며 또한 그 表現이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新羅 觀音思想의 特性

지금까지 新羅 觀音信仰의 展開에 대하여 그 대강을 살펴 보았다. 그와 같은 信仰을 보여주고 있는 觀音靈應의 說話들은 新羅人이 信仰하고 理解한 觀音의 內面性을 發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信仰說話들은 新羅의 觀音觀을 표현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新羅 觀音思想의 특수성을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新羅의 觀音思想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그 特殊性을 들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첫째는 現實利益의 新羅 爲主的인 것이요, 다음에는 觀音의 自發的인 應現救濟라고 할 것이다.

(1) 現實利益의 新羅 爲主的 觀音

본래 觀音信仰이 現實(現世)利益의 信仰이기는 하지만 新羅에서의 信仰은 특히 現實的이고 新羅 爲主的임을 볼 수가 있다.

觀音의 現世的 住處가 南海 補陀洛迦山이라는 經說에 따라서 觀音住處를 南海 補陀洛迦山으로 보는 것은 어느 地方(國家)을 막론하고 하나의 通說로 되어 있다. 中國에서는 옛부터 浙江省 寧波의 東海에 있는 觀音奉祀의 島嶼를 普陀山이라고 하여 觀音道場으로 삼았는데, 그 곳은 中國의 東海에 해당되지마는 唐의 國都에서 볼 때에는 南쪽이 된다. 그러나 新羅의 觀音住處인 洛山은 新羅 國都(慶州)의 北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觀音住處가 南海라는 상식적인 通說과는 正反對가 되는 北方에다가 洛山(補陀洛山)을 設定한 新羅의 觀音住處는 독특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新羅 觀音信仰의 定着 出發이라고 할 수 있는 根本道場設定에서부터 우리는 新羅 爲主的인 思想傾向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經說 및 印度 古傳에서는 觀音이 山上에 住處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⁴⁹⁾ 新羅의 觀音은 海邊의 窟內에 머물고 있으면서 山上에는 雙竹을 湧生시켜 殿堂을 짓게 하여 어디까지나 新羅 觀音으로서의 面目을 나타내 보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新羅의 觀音이므로 鄉僧의 몸을 나투어 異國까지 가서 이 땅의 國仙을 救해왔고, 또 간절한 貧母의 祈願을 들어주어 먼 海外의 吳國에 가서까지 新羅 젊은이를 데려왔던 것이며, 盲兒의 간절한 祈求의 노래를 듣고는 光明을 되찾게 하여 주었고, 어리석은 沙門을 위하여는 꿈으로 無常의 法理를 보여주어 깨닫게 하였으며, 亂中의 飢饉을 짓먹여 돌보아 주었던 것이다.

그처럼 信仰하고 그와 같이 理解하여 보여 주었던 新羅의 觀音應驗을 통하여 現實利益의이며, 新羅 爲主的인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新羅의 觀音으로 信仰하였고, 그 觀音을 現實의 生活面에서 모든 利益을 增長시키는 救世利生의 大悲菩薩로 믿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新羅의 觀音은 西方國土往生을 來迎하며 無量壽佛을 脇侍하는 極樂國의 菩薩도 아니며, 印度의 南海 補陀洛山에 常住하며 說法하는 菩薩도 아닌 오직 이 땅의 觀音으로서 新羅人을 現實적으로 모든 면에서 利益되게 하는 新羅의 菩薩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新羅의 觀音信仰은 現實利益의 新羅 爲主的인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信仰이기 때문에 新羅의 觀音이 이 땅의 彌勒佛과 彌陀佛을 成佛하게 하였다는 新羅 佛國思想의 一面을 보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2) 觀音의 自發的 應現救濟

法華經에 의하면,

“無量 百千萬億의 衆生이 諸苦惱를 받을 때, 이 觀世音菩薩에 대하여 듣고 一心으로 稱名하면 觀世音菩薩이 即時에 그 音聲을 觀하고 모두 苦惱로부터 解脫을 얻게 한다.” 하여, 觀世音菩薩의 이름을 持稱하는 자는 大火도 태울 수 없고, 大水도 漂流치 못하며, 羅刹之難과 臨當被害와 杻械枷鎖의 檢繫其身 및 怨賊中에라도 모두 解脫을 얻게 되며, 觀世音菩薩을 常念恭敬하면 離欲·離瞋·離癡하며, 觀世音菩薩을 禮拜供養하면 福德智慧之男과 端正有相之女를 낳게 된다고 있다.⁵⁰⁾

이와 같이 觀音菩薩은 그 이름을 持稱하고 常念恭敬하고 禮拜供養하므로써 解脫을 얻게 하고 所願을 成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同 普聞品の 偈頌에서는 ‘觀音을 念

49) 華嚴經(舊經) 卷51(新修藏 第9卷 p. 718·上)에는,

“……登彼山上周遍推求 見觀世音菩薩住山西阿……”라 있고,

大唐西域記 卷10 秣羅矩吒國 條(新修藏 第51卷 p. 932에·上)에도,

“……山徑危險巖谷 山頂有池……池側有石天宮 觀自在菩薩往來遊舍”라고 있어서 觀音住處가 山上임을 보이고 있다.

50) 妙法蓮華經 卷7, 普門品(新修藏 第9卷 pp. 56·下~57·上).

하는 힘(念彼觀音力)⁵¹⁾으로 그렇게 解脫되고 救苦救難된다고 하여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慈藏의 出生과 盲兒의 得眼과 夫禮郎 및 長春의 還鄉救濟, 그리고 衆生寺 大悲像의 갓난아기 보호 등의 事例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러한 觀音應驗의 事例는 모두가 念彼觀音力(持稱·常念恭敬·禮拜供養)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經說 그대로의 信仰結果로서 從來의 觀音信仰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正常的인 事例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新羅의 觀音信仰 事例에서 그와 같은 念彼觀音力에 의한 應驗만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觀音의 名號를 持稱하지 않고 常念·禮拜·恭敬供養(祈願)하지도 않았는데 觀音은 스스로 와서 應現하여 救濟하였다는 것이다.

洛山에 眞身을 瞻禮하러 가는 元曉의 앞에 觀音은 스스로 女人의 몸을 나투어 보이었고, 西方淨土의 修行者로서 往生을 하였다는 沙門 廣德의 妻도 觀音의 應身이었다고 있으나 그는 往生者를 迎接해 간 觀音菩薩이 아니었고 修行者를 도우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나투어 하나의 女人이었다. 그리고 懽興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尼僧의 몸을 나투어 觀音도 持稱禮念에 의한 應現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며, 白月山の 二聖을 成佛시킨 觀音도 스스로 娘子의 몸을 나투어 두 修道者의 앞에 나타났던 것이며, 또 修道處를 찾는 信孝居士 앞에 觀音은 스스로 老婦人으로 나타났고, 觀音은 棟梁(化主僧) 八珍의 몸으로 나투어 이 땅을 教化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音의 自發的인 應現은 觀音菩薩의 無緣慈悲와 自在妙力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念彼觀音力 즉 觀音을 持稱禮念하는 功德力에 의하여 救濟解脫된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無緣 즉 無條件的 救濟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持稱禮念이라는 有條件的 信行에 의하여 얻게 되는 救濟이므로 有緣應驗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典에는 有緣救濟인 念彼觀音力을 說하고 있으나 新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無緣救濟 즉 自發的인 應現의 自在妙力을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新羅의 觀音思想은 自發的이고 積極的이며, 自在妙力의 無條件的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洛山寺의 觀音은 僧 調信의 간절한 소망(장가드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꿈으로 無常을 보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廣德의 妻였다가 嚴莊과 同居하게 된 觀音應身의 女人은 同寢하려는 沙門 嚴莊을 꾸짖고 일깨워 修道하여 西往케 하였던 것이다. 觀音에게 祈願하면 所願이 成就된다고 하지만 무조건 아무 소원이나 다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事理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것일 때에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어리석음과 不當함을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新羅 觀音의 自發的 積極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1) 上同(上同, pp. 57·下 ~58·上).

‘觀無量壽經’에 의하면 觀音菩薩이 金剛臺와 紫金臺 및 金蓮華 등을 가지고 阿彌陀佛과 大勢至菩薩 및 諸菩薩 無量眷屬과 더불어 往生을 願求하는 行者의 命終時에 나타나 大光明을 放照하면서 迎接해 간다⁵²⁾고 있다. 그런데 廣德의 妻로 應現하였다는 新羅의 觀音은 淨土修行者의 妻가 되어 그 修行을 도우고 廣德이 天樂聲과 光明에 쌓여 往生한 뒤에도 그 遺骸를 장사지내고 남편의 친구 嚴莊과 同居키로 약속하고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더욱 修道에 精進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白月山에 應現하였던 娘子觀音은 禮念彌陀의 修行者 坦坦朴朴 앞에 나타나 그의 成佛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彌陀淨土의 修行者였으나 觀音은 그들의 命終時에 阿彌陀佛國의 諸聖衆과 함께 나타나 西方極樂으로 迎接해 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내 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서 修道를 도왔고, 또 彌陀佛 修行者로 하여금 이 땅의 彌陀로 成佛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新羅 觀音의 無緣慈悲에 의한 無條件的 應現救濟의 事例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新羅 觀音思想의 독특한 創意와 그 特殊性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思想은 新羅佛國土의 觀音이기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結 語

이상에서 대충 三國遺事 所傳의 觀音說話들을 통하여 新羅의 觀音信仰 展開와 그 思想性을 살펴 보았다.

三國遺事は 여러 方面에서 그러하지는 특히 新羅의 觀音信仰을 알게 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귀중한 寶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陀彌信仰이나 彌勒信仰에 있어서는 遺事 所傳의 說話 외에도 新羅 佛敎人에 의한 關係著述이 적지 않았고 또 現存하는 것도 없지 않아서 그 方面의 연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形편이다. 그러나 觀音에 있어서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新羅 때의 觀音思想을 알만한 撰述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오늘에 있어서 12·3種의 新羅 觀音信仰 史實을 收錄하고 있는 三國遺事は 단연 이 方面 研究의 唯一한 現存資料集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白花道場發願文이 撰述로 現存해 있으나 이것은 遺事 所傳의 洛山 觀音說話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두어 편의 新羅 觀音說話가 다른 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遺事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新羅의 觀音信仰에 있어서만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三國遺事に 수록되어 있는 信仰史實들을 중심으로 하여 新羅의 觀音信仰을 整理해

52) ‘佛說觀無量壽經’(新修藏 第12卷 pp. 344·下~345·上).

보고 나아가서 그 新羅의 展開와 思想的 特殊性을 究明해 보려는 것이 이 小考의 試圖하는 바였었다.

그리하여 新羅의 觀音信仰은 新羅 特有的 信仰으로 展開되어 독특하고 創意的인 思想的 特殊性을 보이었으며, 그러한 信仰展開와 思想性은 新羅 爲主의 現實的인 佛國土 思想의 한 결과이기도 하였다는 사실들을 대강 살펴 본 것이다.⁵³⁾

53) 新羅의 觀音思想에 대하여서는, 金東旭 '新羅觀音思想과 禱千手大悲歌'(韓國歌謠의 研究) 및 拙稿 '新羅 白月山二聖說話의 研究'(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등에서 이미 論及된 바가 있다.